

## 일제 식민시대와 해방 후의 농민시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고찰\*

박 규 택\*\*

1. 서론
2. 농민시 해석의 틀로서 정치생태학
3. 정치생태학의 측면에서 농민시의 핵심 용어 분석
4. 낱씨와 땅, 농민의 삶 그리고 정치·경제 간의 관계성
  - 1) 낱씨와 땅 그리고 농민·농사의 상호 관계성
  - 2) 소작제, 시장경제와 상품화 그리고 농민의 빈곤
  - 3) 해방 직후 농민의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미결정의 사회·정치 공간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제 식민시대로부터 해방 직후 발표된 농민시에 나타난 낱씨와 땅, 농민과 농사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 사이의 관계를 정치생태학의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시는 낱씨와 땅을 개별 혹은 상호 관계의 측면에서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농민의 정서와도 연결하고 있다. 둘째, 농민의 가난과 고통은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더불어 소작료, 세금, 빚 등에 기인하고 있다. 셋째, 해방 직후 농민의 삶은 일제 식민시대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정치체제가 총독부에서 미군정의 통치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분노와 요구가 폭발적

\* 이 논문은 202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조교수(pkt11@pusan.ac.kr)

으로 분출하여 대립함에 따라 농민은 더욱 어렵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 농민은 해방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이며, 이전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주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사생결단의 좌우 이념 대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수동적으로 휘말려 들었다. 해방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농민은 유일한 안식처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운명에 직면하였다.

\* 주요어: 날씨와 땅, 농민시, 일제 식민시대, 소작료, 정치생태학

## 1. 서론

농촌 사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농민은 날씨<sup>1)</sup>와 땅<sup>2)</sup>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야만 했으므로 농민시는 이들의 관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농민시는 농민과 농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날씨와 땅의 자연환경 및 경제·정치 체제 간의 복잡하고 역동적 관계를 함축하여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구의 근대 과학은 자연을 인간으로부터 분리시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인간의 정서와 무관한 대상 혹은 객체로 취급하였다.<sup>3)</sup> 특히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대기로 배출한 온실가스<sup>4)</sup>로 인해 기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문

1) 날씨(weather)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大氣)의 단기간(하루에서~일주일 정도) 상태”를 뜻하며, 대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정도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기후(climate)는 날씨를 장기간(30년 정도)에 걸쳐 종합한 상태이다. 시간적 관점을 제외하고 날씨와 기후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구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광호, 『인간과 기후환경』, 시그마프레스, 2004, 4쪽.

2) 땅은 “바다를 제외한 물, 육지, 논과 밭의 총칭, 영토(혹은) 영지, 토지, 택지, 지방”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희승 감수,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2001, 4쪽. 본 연구에서 땅은 자연 상태의 산과 들, 대지(大地) 또는 논과 밭의 농토(農土)를 의미한다.

3) 박신화, 「메를로-뵐피의 자연개념과 주체의 문제」, 『철학논집』 제27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47쪽.

4) Will Steffen, Paul J. Crutzen and John R. McNeill, “The Anthropocene: Are Humans Now Overwhelming the Great Forces of Nature?”, *Ambio*, Vol.36, No.8, 2007, p.614.

제를 일으키고 있다.<sup>5)</sup> 따라서 농민시의 고찰은 날씨와 땅, 농민과 농사 그리고 경제·정치 체제 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sup>6)</sup>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제 식민시대와 해방 후의 농민시 연구는 정서, 담론, 이념, 정치·경제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졌다. 서범석은 개화기 농민시를 현실비판 의식, 계몽적 중농 사상, 풍속사적 생활 의식 등의 측면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일제 식민통치 하의 농민시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sup>7)</sup> 그는 일제 식민시대에서 해방 후의 농민시를 모아 책으로 출판하였으며, 이들을 비판적 사실주의, 민족주의 혹은 계급주의 이념 그리고 생산문학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sup>8)</sup> 전영주는 계몽의 수사학으로 일제 식민시대의 ‘농민시’를 분석하였고, 홍성식은 생활 문학의 관점으로 『조선농민』과 『농민』에 수록된 농민시<sup>9)</sup>를 그리고 오세영과 박경수는 민족, 계급, 계몽, 서정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농민시<sup>10)</sup>를 고찰하였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관점으로 농민시를 분석하였으나 자연, 특히 날씨와 땅, 농민의 삶과 농사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

- 
- 5) 임철희·이정철, 「기후변화 시대 인문학의 응답과 역할 : 철학, 종교,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제13권 4호, 한국기후변화학회, 2022, 447쪽.
- 6) Sule E. Egya, Margaret N. Agu and Safiyya Adam, “Poetry, Protest, and Environment: Human and Nonhuman Rights in Nigerian Literature”, *Law and Humanities*, Vol.16, No.1, 2022, p.59.
- 7) 서범석, 「개화기 농민시의 화자와 시의식 고찰」, 『국제어문』 제 56집, 국제어문학회, 2012, 137~138쪽. 일제 식민시대의 농민시는 고전시가의 서민저항 가사와 한시의 농민 전통을 이어받아 ‘비판적 사실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외되어 온 농민들이 겪게 되는 농업노동의 고통, 보릿고개로 표상되는 굶주림, 흉수나 가뭄 등의 기상 조건에 의하여 겪는 괴로움, 지주나 관료의 착취에 의한 억울함, 그리고 이러한 질곡의 삶에 의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이산의 아픔 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비판적 리얼리즘의 농민시’로 양식화하였다.” 서범석, 위의 논문, 138쪽.
- 8) 서범석, 『한국 농민시 -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까지의 농민시 모음』, 고려원, 1993, 981~997쪽.
- 9) 전영주, 「일제강점기 ‘농민시’를 통해 본 계몽의 수사학: 『조선농민』과 『농민생활』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86집, 동악어문학회, 2022, 39~40쪽; 홍성식, 「생활문학으로서의 농민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285~286쪽.
- 10) 오세영, 「日帝下 韓國의 農民文學論과 農民詩 研究」, 『성곡론총』 제22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91, 2011, 63~66쪽; 박경수, 「해방기 농민시의 전개양상과 현실표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22집, 한국문학학회, 1998, 45~48쪽.

모두를 관련지어 고찰하지 않았다. 농민시를 인문학, 특히 문학이 아닌 사회 과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자연과 인간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함축과 비유의 방법으로 묘사한 농민시를 정치생태학의 관점으로 고찰한다. 연구자료는 서범석의 『일제강점기<sup>11)</sup>부터 해방공간까지의 농민시 모음: 한국농민시』에서 1933년 이후<sup>12)</sup> 출간된 농민시들 가운데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일제 식민시대의 17편과 해방 후의 13편이며, 이들 외의 농민시가 질적 분석에 활용되었다.

## 2. 농민시 해석의 틀로서 정치생태학

1980년대 이후 '자연, 인간 그리고 정치·경제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 제시된 정치생태학은 생태학, 문화생태학 그리고 정치경제학 각각의 이론과 실천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 혹은 지역의 연구에 응용되어 왔다.<sup>13)</sup> 따라서 정치생태학은 단일한 이론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이론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틀로 수립되었다.<sup>14)</sup> 특히 정치생태학은 신생태학으로부터 불균형과 불확실성에 기반한 자연 이해<sup>15)</sup>, 후기구조주의에 의한 인간과 자연

11)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를 일본 제국주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일제 식민통치 혹은 일제 식민시대'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12)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발표한 뒤 출간된 농민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도 이해하기가 쉽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13) 박규택,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에 의한 자연 환경과 사회의 관계 이해」, 『지리학 논구』 18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98, 61~62쪽.

14) Jones, S., "Political Ecology and Degradation: How Does the Land Lie 21 Years after Blaikie and Brookfield's *Land Degradation and Society*?", *Geography Compass*, Vol.2, No.3, 2008, p.671; Wolf, E., "Ownership and Political Ec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45, No. 3, 1972, p.201.

15) 서구에서 20세기 후반에 '신생태학(new ecology)'이란 개념 혹은 이론이 제시되기 훨씬 이전인 17세기 중반에 출간된 『農家集成』에 기후의 역동성과 불규칙성이 잘 드러나 있다. "1653~1655년의 기후는 '저온현상', '국지·단기적 이상저온현상', '장기 지속적인 가뭄현상', '일시 집중적인 홍수(폭설) 현상' 등을 중심으로 '이상난동현상', '해일', '우박', '바람', '강한 바람' 및 '폭풍' 등이 추가되는 형태의 '소빙기적 특징'('저온현상'과 '불규칙성')을

의 관계에 대한 담론 분석<sup>16)</sup> 그리고 정치경제학에서 국가 혹은 정치에 대해 ‘구조와 행위’ 간의 상호 작용의 관점에서 비판을 수용<sup>17)</sup>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생태학의 변화 모습은 대단히 복잡하나 이론의 핵심에 ‘자연’ 혹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해 그리고 ‘권력(power)’ 및 ‘제도 또는 체제’에 초점을 둔 정치경제학이 자리하고 있다.

생태학은 ‘유기체와 이를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농민 삶의 기반인 농사의 풍년과 흉년은 날씨와 땅의 상태 변화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 생태학은 자연(自然)을 균형, 질서, 안정, 예측 가능성의 관점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비판한 신생태학(new ecology)은 불균형, 역동성<sup>18)</sup>, 예측 불가능의 관점<sup>19)</sup>으로 자연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신생태학의 관점으로 농민시를 이해한다. 문화생태학은 전통 생태학의 관점으로 ‘로컬 혹은 지역 사람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인류학자가 개발한 이론이다. 이는 자연의 역동성, 불균형,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세계의 정치·경제 체제를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sup>20)</sup> 또한 이는 로컬 사람들의 삶과 사회·문화의

---

보였음을 알게 된다.” 박근필, 『氣候와 農業의 微視分析(1653~1655)을 통해 본 『農家集成』 編纂의 背景』, 『농업사연구』 제4호 2권, 한국농업사학회, 2005, 15쪽.

16) Escobar, A., “Elements for a post-structuralist political ecology”, *Futures*, Vol.28, No.4, 1996, p.325.

17) Loftus, A., “Political ecology II: Whither the stat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44, No.1, 2020, p.139; Scoones, I., “New Ec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What Prospects for a Fruitful Engagement?”, *Annual of Review of Anthropology*, Vol.28, 1999, p.479.

18) ‘신생태학’이란 이론이 제안되기 훨씬 전의 태종 때의 실록(1406년 12월 30일)은 “대풍우, 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쳤는데 밤중이 되어서야 그렸다. 야계가 모두 울고 혼기가 봄 기운 같았다”와 같이 역동적으로 기상 현상을 묘사하였다. 임규호·심태현, 「조선왕조 실록의 기상 현상 기록 빈도에 근거한 기후」, 『한국기상학회지』 4권, 한국기상학회, 1998, 345쪽.

19) Grabbatin, B. and J. Rossi, “Political Ecology: Nonequilibrium Science and Nature - Society Research”, *Geography Compass*, Vol.6, No.5, 2012, p.275.

20) Escobar, A., “Steps to an Antiessentialist Political Ecology”, *Current Anthropology*, Vol.40, No.1, 1999, p.1.

발전을 제약하는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발전, 협력 등의 능동적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후기구조주의에 의하면, 기존의 정치생태학은 자연의 개념 혹은 관점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전승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즉, 권력(power)의 측면에서 사회와 자연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정치생태학, 특히 정치경제학의 관점은 ‘자연(nature)’이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전파된 담론이자 실천임을 고려해야 한다.<sup>21)</sup>

정치경제학은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과학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국가 체제의 관점에서 후진국의 다양한 문제들, 즉 빈곤, 저발전, 토양 침식 등을 설명하는 틀로 사용되었다. 생산양식(modes of production)의 측면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와 이용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및 국가 체제가 논의되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서 소작제 하에서 지주(地主)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갖고 이를 자신의 의지대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사를 짓거나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품으로서 토지는 시장에서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치체제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성, 인종 혹은 민족, 장애인, 소수자 등이 복잡하게 얽혀져 작동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직·간접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이 성차별, 인종 차별, 소수자 억압 등의 문제를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설명한다면 ‘경제 환원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의 문제를 정치경제학으로 설명할 때, 자연은 단지 생산요소로만 취급되거나 인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객체로 인식되고 있다. 날씨와 땅과 같은 자연은 인간의 인식과 행위와 복잡하게 얽

21) 예를 들면, ‘들’이란 자연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개념이 아닌 특정한 시대 혹은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1920년대 시에서 ‘들’은 농경사회적 삶과 도시문명의 근대적 삶이 공존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일종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오래된 것’에의 친근성과 ‘지나간 것’에의 그리움을 저변에 지닌 대상이며, 일제강점기라는 왜곡된 시대 현실의 흐름 속에서 아직은 희망을 가질 만했던 시기의 지식인이자 시인들이 자기동일화, 일체화, 위로와 치유의 경험을 내재시킬 수 있는 대상이었다.” 정효구, 「1920년대 시가 발견한 ‘들’의 표상성과 그 의미」, 『한국시학연구』 제56호, 한국시학회, 2018, 178쪽.

혀져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sup>22)</sup> 역동성,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농민의 삶은 농사의 결실에 달려있으며, 이는 날씨와 땅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농업 중심의 전통 사회에서 농민은 자연 상태의 땅을 개간(改刊)한 농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았고, 이들의 삶은 정치·경제 체제의 영향을 받았다.<sup>23)</sup> 일제 식민시대의 농민시는 날씨와 땅, 전통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혼합된 소작제, 시장경제 그리고 식민지 정치체제 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으며, 해방 직후의 농민시는 자연환경과 가난한 농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으나 식민지 총독부에서 미군정으로 정치체제가 변동해 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펼쳐진 혼돈의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 3. 정치생태학의 측면에서 농민시의 핵심 용어 분석

본 연구는 일제 식민시대에서 해방 직후까지의 농민시를 분석하기 위해 핵심 용어로 날씨와 땅, 농민과 농사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정치·경제 체제는 소작제와 시장경제 그리고 식민 정치와 탈식민 정치로 구분되어 있다. 연구는 정치생태학의 관점으로 농민시를 고찰할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될 농민시는 정치생태학의 이론을 구축하는 중심 개념인 자연(날씨와 땅), 자연과 인간의 관계(농민과 농사) 그리고 경제·정치 제도 혹은 체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천지인(天地人)에서 인간(人間)은 하늘(天)과 땅(地) 사이에 존재하듯이 전통 농업 사회의 중심인 농민의 삶은 하늘(大氣)의 날씨 그리고 땅<sup>24)</sup>의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풍년(豐年)

22) Royle, C., "Complexity, Dynamism, and Agency: How Can Dialectical Biology Inform Geography?", *Antipode*, Vol.49, No.5, 2017, p.1427.

23) 박규택,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황묵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224쪽.

24) 김탄의 「일하는 農民」(1933. 3.)에서 자연의 땅을 농토로 변형시키는 작업은 “들로 山으로 우리는 自然을 征服하는 勇士들이다 / 괭이로 파고 낫으로 배고, 손으로 뭉치고 발로 밟으

혹은 흉년(凶年)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는 농민과 농사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다.

〈표 1〉은 일제 식민통치 하의 농민시(17편)가 날씨와 땅, 농민과 농사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를 개별, 부분 그리고 전체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단순하게 분석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하의 농민시는 날씨와 땅을 거의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전자(16편)가 후자(14편)보다 약간 많다. 농민의 생활을 결정짓는 한 해의 농사는 햇빛, 물, 토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날씨와 땅의 조건 변화에 민감하다. 선정한 농민시(17편) 가운데 13편이 날씨와 땅을 연관시키고 있다. 그리고 농민과 농사를 묘사한 농민시(16편) 중에 12편이 날씨와 땅을 관련짓고 있다. 일제시대의 정치·경제 체제로 구분된 소작제와 시장경제와 식민 정치는 17편의 농민시 가운데 각각 4편과 2편에 언급되어 있으며, 둘 모두가 포함된 농민시는 동립의 「農村의밤」<sup>25)</sup> 1편이다.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 농민과 농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작제, 시장경제 그리고 식민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석 대상이 된 농민시(17편) 가운데 소수에서만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17편의 농민시는 날씨와 땅 그리고 농민과 농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1930년대 이후 농민시가 소작제, 시장경제 그리고 식민 정치를 소홀하게 다루었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해방 후의 농민시(13편)는 땅(12편)<sup>26)</sup>을 날씨(8편)보다 좀더 많이 언급하였다(표 2).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제 시기에 날씨와 땅이 비슷한 빈도로 농민시에 나타난 것과 다르다. 해방 직후 영세 농민, 소작인, 고향인 농촌으로 귀환한 동포 등의 가장 큰 관심은 토지, 특히 농지개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며 / 모 — 것을 뜻대로 만들고야만다”로 표현되어 있다.

25) 동립의 「四節農歌」(1933. 1.)에서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날씨(봄비, 喜雨, 바람, 하얀눈으로 표현됨)와 땅(山, 沃畝, 벌판, 大地로 표현됨) 간의 관계가 묘사되어 있을 뿐 농민과 농사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정치·경제 체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26) 자연적 땅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토지(土地)인 논과 밭을 주로 의미한다. 권환의 「故郷」(1946. 4. 20)은 들(野)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과 밭이 농민의 소유임을 “이 넓은 ‘삼거리’ 들(野)도 모두 ”우리들 땅입니다 인젠, 齋藤이 논도 鈴木이 밭도 아닙니다”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 1〉 일제 식민시대 농민시의 중심 용어의 빈도 분석

| 농민시 | 날씨 | 땅  | 관계 | 농민과 농사 | 정치·경제 체제  |       |
|-----|----|----|----|--------|-----------|-------|
|     |    |    |    |        | 소작제와 시장경제 | 식민 정치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16  | ●  | ●  | ●  | ●      |           |       |
| 17  | ●  | ●  | ●  | ●      |           |       |
| 총계  | 16 | 14 | 13 | 16     | 4         | 2     |

1. 동림, 「四節農歌」, 1933. 1. 2. 홍용익, 「갈곧없는小作人」, 1933. 1. 3. 동림, 「農村의밤」, 1933. 1. 4. 계수, 「눈오는밤」, 1933. 2. 5. 허문일, 「우박은없는나」, 1933. 2. 6. 김탄, 「일하는 農民」, 1933. 3. 7. 삼봉, 「차라리나를 따리려야」, 1933. 7. 8. 조벽암, 「봄」, 1934. 9. 남대우, 「蟾津江은불엇소이다」, 1934. 8. 2 10. 이서해, 「憧憬하는 田園의여름」, 1935. 8. 11. 민병균, 「八月村景」, 1935. 8. 12. 유곤강, 「大地」, 1936. 11. 13. 정호승, 「小作人」, 1936. 11. 14. 이해문, 「비를 기다리는 무리」, 1938. 1. 10. 15. 권환, 「보리」, 1939. 4. 16. 김해강, 「待雨」, 1939. 6. 30. 17. 김태오, 「비를기다리누마음」, 1939. 8. 8.

〈표 2〉 해방 후 농민시의 중심 용어의 빈도 분석

| 농민시 | 날씨 | 땅  | 관계 | 농민과 농사 | 정치·경제 체제  |        |
|-----|----|----|----|--------|-----------|--------|
|     |    |    |    |        | 소작제와 시장경제 | 탈식민 정치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총계  | 8  | 12 | 6  | 9      | 4         | 7      |

1. 이상은, 「농민의소리」, 1946. 2. 13. 권환, 「故郷」, 1946. 4. 20. 3. 김상훈, 「田園哀話」, 1946. 6. 4. 유진오, 「江마을」, 1946.10. 5. 안함광, 「農軍의아들」, 1947.3.2. 6. 조허림, 「흙의 아들이어」, 1947. 6. 7. 오장환, 「봄에서」, 1947. 8. 8. 유중대, 「洛東江」, 1947. 9. 9. 여상현, 「보리씨를 뿌리며 - 永川에서 어떤 늙은 農夫의 告白」, 1947. 9. 20. 10. 이병철, 「洪水」, 1948. 8. 11. 김요섭, 「흙을 씹으며」, 1949. 1. 15. 12. 이응창, 「푸른 대지(大地)」, 1949. 1. 15. 13. 윤복구, 「農家」, 1949. 12. 31.

있으므로 당시의 농민시는 날씨보다 땅, 특히 농토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날씨와 땅의 관계를 다룬 농민시의 비율도 일제 시대의 76.5%(17편 중 13편)에서 해방 후의 46.2%(13편 중 6편)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농민과 농사를 날씨와 땅 개별 혹은 모두와 연계시킨 농민시의 비율도 94.1%(17편 중 16편)에서 69.2%(13편 중 9편)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

에 의하면, 일제시대의 농민시가 해방 직후의 농민시에 보다 낱씨와 땅 그리고 농민과 농사를 관계적으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이에 비해 해방 직후의 농민시는 식민 정치(2편, 11.8%)보다 탈식민 정치(7편, 53.8%)를 많이 다루고 있다. 이는 해방으로 인해 일본 제국주의의 총독부 통치가 끝이 났으나 이를 대체하는 안정적 정치체제<sup>28)</sup>가 수립되지 않은 미확정의 정치 공간에서 다양한 탈식민 정치, 특히 농지개혁의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 4. 낱씨와 땅, 농민의 삶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 간의 관계성

일제 식민시대로부터 해방 직후까지 농민은 벼와 보리의 농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었으므로 낱씨와 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으며, 또한 이들의 삶은 당대의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제 통치시기와 해방 후 가난과 고통을 견디면서 살았던 농민의 삶은 낱씨와 땅, 농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경제·정치 각각의 영역이 부닥치면서 작동하는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깊고 넓게 이해될 수 있다.

##### 1) 낱씨와 땅 그리고 농민·농사의 상호 관계성

앞산에 아즈랑이 봄비 재촉코 / 뒤山 杜鵑花는 피어 옷을 때 / 소물고 연장지고 봄노래하며 / 어이야 — 더이야 — 들노 나가세 // 기다리던 喜雨는 소낙비되고 / 沃畜에 移植한벼 춤을출때엔 / 샷갓에 누역입고 발빨니 하야 / 어이야 — 더이야 물대러가자 // 살랑살랑 부는바람 수숫대흔들고 / 광막한 별판은 황금빛이라 / 西山에 落照을 앓겨가면서 / 어이야 — 더이야 — 권우러가세 // 하야눈 大地에다 白衣 입히고 / 찬바람 뽀이불

27) 분석 대상인 농민시가 일제 식민시대와 해방 직후의 농민시를 대표하지 않으므로 <표 1> 과 <표 2>의 결과는 일반화될 수 없다.

28) 해방 후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해, 한반도의 남쪽인 북위 38도 이남을 미군정이 임시적으로 통치하였다.

어 쨌두다릴 때 / 등불이 쫄고 있는 사랑방에서 / 어이양 더이양 잡지나  
보세

- 동림, 「四節農歌」 전문<sup>29)</sup>

부누나 봄바람 / 분홍치마 한들 / 나무 캐는 처녀의 하얀땀 꽃피네 //  
씨뿌리자모내자 / 파란벼가득 / 해지고언덕길에 이슬만이반작// (중략)  
함박눈 퍼억퍽 / 뜰우에 싸이고 / 곱방대 연기 속에 / 각설있때 흘려가네

- 은주, 「農村四季小曲」 일부<sup>30)</sup>

위의 두 농민시는 계절에 따른 날씨의 변화와 이와 연관된 정서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四節農歌」에서 날씨는 봄비, 소낙비, 바람, 하얀눈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겨울의 눈과 바람은 ‘눈이 내려 온 땅은 흰색의 옷을 입은 듯하고,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모습’으로 인간의 행동에 비유되어 있다. 날씨와 경치는 “앞산에 아즈랑이 봄비 재촉코”와 “살랑살랑 부는 바람 수숫대 흔들고, 광막한 벌판은 황금빛이라”로 묘사되어 있다. 비와 농작물 그리고 농민의 인식과 행동은 “기다리던 喜雨는 소낙비되고, 沃畝에 移植한 벼 춤을 출때엔, 샷갓에 누역입고 발빨니하야, 어이야 — 더이야 물대러가자”를 통해 상호 연계되어 있다. 「農村四季小曲」도 계절에 따른 날씨와 풍경의 변화 그리고 농촌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옷음을 머금고 나무 캐는 처녀의 분홍치마는 봄바람에 흔들리며, 퍼억퍽 소리 내는 함박눈이 뜰에 가득하고, 곱방대 문 농민이 한가하게 각설이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들 농민시는 날씨와 땅, 경치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비평형의 관점으로 탐색한 민족지 연구는 자연 대 문화, 인간 대 비인간의 이분법을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가 서로 얽혀져 있음을 비서구 사회나 현대 과학과 기술의 생산 과정의 탐구로 밝히고 있다.

29) 동림, 「四節農歌」, 『농민』, 1933. 1. (서범석, 앞의 책, 512~513쪽).

30) 은주, 「農村四季小曲」, 『신흥영화』, 1932. 6. (서범석, 앞의 책, 451쪽).

눈보래 처럼 눈보래 처럼 / 별판 우으로 울며 가자 // 기름처럼 빠작 빠작 타는 목숨 // 눈보래 속에 눈보래 속에 / 별빛 처럼 흐려 보자 // 짱 짱 언 하늘밑 / 눈을 헤치고 얼음을 깨고 / 한줌 흙을 얻자 / 봄이 오면 흙이 다시 산다오 // 흙은 눈보래 속에 끝끝내 죽지않고 있다 / 나도 흙과 함께 살아 죽어서는 안된다 // 흙을 씹으며 / 나의 가슴에 날아 들 초릿 제비를 기두릴가나 / 흙을 씹으며 / 흙속에 묻은 꽃냄새 풀냄새를 드러킬가나

- 김요섭, 「흙을 씹으며」 전문<sup>31)</sup>

(전략) 지금 湖面에는 갈길모르는 햇빛들이 이리저리 서로 밀린다 / 한없이 내려퍼부는 해빛은 湖面에 넘쳐 흐른다 / 그러나 차례차례 쪽쪽빛을 빠러 드리는 굶주린땅의 食欲 / 오 땅 / 위대한 만물의 어머니 땅이여 / 우리는 그대의 것을 바다마시어 이같이 자랐다 / 그대의 량식인 해빛은 그대의 乳房을 통할제 우리의 것이었다 // (후략)

- 김윤성, 「땅」 일부<sup>32)</sup>

위의 농민시는 땅 혹은 흙을 매개로 ‘자연과 농민의 삶’이 서로 얽혀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흙을 씹으며」는 겨울의 눈보래 속에서도 흙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봄에 소생하여 생물을 키우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겨울 날씨와 생명의 시련은 “눈보래처럼 눈보래처럼, 별판 우으로 울며 가자, 기름처럼 빠작 빠작 타는 목숨”을 통해 상상될 수 있으며, 혹독한 날씨에도 흙의 생명력이 지속되어 봄에 다시 살아남을 “짱 짱 언 하늘밑, (중략) 봄이 오면 흙이 다시 산다오, 흙은 눈보래 속에 끝끝내 죽지않고 있다”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을 견디어 온 흙은 “나의 가슴에 날아 들 초릿 제비를 기두릴가나, 흙을 씹으며, 흙속에 묻은 꽃냄새를 드러킬가나”의 표현을 통해 봄에 생물을 키우는 힘으로 묘사되어 있다.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흙은 해방 직후 빈곤하고 힘든 농민의 삶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해방은 일제 치하를 견디어 온 농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31) 김요섭, 「흙을 씹으며」, 『죽순』, 9호, 1949.1.15. (서범석, 앞의 책, 965쪽).

32) 김윤성, 「땅」, 『백매』, 창간호, 1946. 1. (서범석, 앞의 책, 884쪽).

없었으며, 농지(農地)의 소유권을 둘러싼 격렬한 좌우(左右)의 이념 갈등<sup>33)</sup>으로 인해 농민은 여전히 가난하며, 또한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김윤성의 「땅」에서 땅은 어머니의 모성애에 비유되어 있으며, 이는 “위대한 만물의 어머니 땅이여, 우리는 그대의 것을 바다 마시어 이같이 자랐다, 그대의 량식인 햇빛은 그대의 乳房을 통할제 우리의 젖이었다”에 잘 드러나 있다. 서범석은 땅, 생물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홍일선의 농민시 속에서 찾았다. “땅이 농민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은 주로 논과 밭 즉 ‘농토’가 된다. 그것은 곧 곡식의 거대한 자궁으로서 삶의 젖줄이며 생명의 토대가 된다.”<sup>34)</sup>

한방울 두방울 / 주루룩 주루룩 / 즐기치게 나리는 비발이 / 하루밤  
이틀밤이 지났사되다 / 나지막한 하늘에서 / 부 — 이한 하늘에서 / 아 —  
비는 어지럽게도 이지럽게도 / 설새 업이 쓰다지나이다 / 폭포가티  
쓰다지는 물소리 / 왼산을 뒤집어 먹을것처럼 / 무섭게도 무섭게도 /  
붉은물줄기가 누런물줄기가 / 썩! 썩! 소리지르며 흘어나이다 / 강물은  
불어서 / 아저씨들이 피땀흘려 갖구운 / 푸른 들판을 쓸어엿혔나이다 /  
그리고는 / 우리들의 사는 마을을 행하야 / 넘실넘실 거어들어 / 집을  
삼키고 마을 사람들을 / 휩쓸어갔나이다.

- 남대우, 「蟾津江은불엿소이다」 전문<sup>35)</sup>

장마가 스쳐간 江기슭엔 / 모래도 물에 젖어 반짝이지 않고// 두어그루 또  
두어구루 미루나무엔 / 집도오래기만 일키어 / 가지마다 바람에  
나부끼는데 // 허무러져 임자없는 피뿌리모양 / 초라한 마을엔 / 두꺼비와  
개고리만 있을뿐이다 // 아 여기 이마을 / 서러웠던 꿈이 / 아물거리는  
논이랑에 / 또다시 한없는 숲음이 몰여오든날 // 정영 깃드릴곳없는  
마을을 안고 / 옛날처럼 예날처럼 떠나야만했다 // (후략)

- 유진오, 「江마을」 일부<sup>36)</sup>

33) 전운성, 「光復後 美軍政府의 土地改革에 관한 再評價」, 『사회과학연구』 34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4, 107쪽; 김상숙, 「농민항쟁의 측면에서 본 1946년 10월사건 경북 영천의 사례연구」, 『기억과 전망』 25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2011, 144~145쪽.

34) 서범석, 「홍일선의 농민시에 나타난 ‘땅’에 관한 고찰」, 『겨레어문학』 제 38집, 겨레어문학회, 2007, 262쪽.

35) 남대우, 「蟾津江은불엿소이다」, 『조선중앙일보』, 1934. 8.2. (서범석, 앞의 책, 623~624쪽).

위의 두 농민시는 장마로 불어난 예측불허의 물살이 농토, 집, 농민을 휩쓸고 가면서 무엇하나 남기지 않은 농촌 마을의 재난(災難)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蟾津江은불엇소이다」에서 장마에 불어난 황토색의 거친 물살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흐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는 “원산을 뒤집어 먹을것처럼, 무섭게도 무섭게도, 붉은 물줄기가 누런 물줄기가, 썩! 썩! 소리지르며 흘러나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江마을」은 장마가 지나간 강가 마을에 주민들이 사라지고, 두꺼비와 개구리만 남아 있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물은 농가를 휩쓸고 가다 무성한 나뭇가지로 인해 뼈대만 남아 있게 한 형상이 “두어그루 또 두어그루 미루나무엔, 집도 오래기만 얼키어, 가지마다 바람에 나부끼는데”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농민시는 장마와 폭우라는 날씨가 예측하기 어렵고, 역동적으로 작동하면서 논과 밭 그리고 농촌의 집과 마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장마와 대조되는 날씨가 가뭄이며, 둘 다 농사와 농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래 「비를기다리는 마음」은 가뭄이 산과 하천, 나무와 풀 그리고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활동적인 기운을 잃어버리게 하는 힘으로 작동함을 묘사하고 있다. 산천과 초목이 생기를 얻기 위해 또한 농민은 농사를 짓기 위해 비가 알맞게 내려야 한다. 김태오는 가뭄에 따른 어린 벼와 논이 처참하고, 개구리의 울음도 처량하게 들리는 상태를 “모자리는 그대로서서 바작 바작 애타우고, 논바닥은 드디어 거북잔등이 되어 ..... 개구리 우는소리도 유난히 처량하옵니다”로 나타내고 있다.

(전략) 가뭄 가뭄해도 이런가뭄이 또 어디잇으리까 / 山川이고 草木이고 禽獸이고 사람이고간에 / 어디이고 싱싱한 生氣를 찾아볼수 잇으리까 / 이러트시 메마른 東山은! / 물을 찾는마음 비를 기다리는마음 사뭇 조급하옵니다 // 모자리는 그대로서서 바작 바작 애타우고 / 논바닥은 드디어 거북잔등이 되어 ..... / 개구리 우는소리도 유난히 처량하옵니다. //(후략)

- 김태오, 「비를기다리는 마음」 일부<sup>37)</sup>

36) 유진오, 「江마을」, 『신천지』, 1946, 10. (서범석, 앞의 책, 794쪽).

위의 농민시들은 자연의 일부인 날씨와 땅이 시인 혹은 농민의 정서 및 삶과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직접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발전된 정치생태학의 핵심 이론들 가운데 하나인 '신생태학(new ecology)'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는 내용이다. 즉, 농민시는 날씨와 땅의 역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들과 연관된 농민의 서정적 혹은 처절한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 2) 소작제<sup>38)</sup>, 시장경제와 상품화 그리고 농민의 빈곤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 자본은 한반도에 침투하여 토지, 특히 농지를 계속해서 확보하였다. 특히 일본은 러일전쟁(1904~1905년)에서 승리한 이후 식민지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조선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으며, 일본 대자본은 한반도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여 조선인 소유의 농토를 지속적으로 잠식하였다.<sup>39)</sup> 또한 일제 통치하에서 시장경제와 농지와 농산물의 상품화가 진전되었으며,<sup>40)</sup> 일본 자본과 지주 중심의 소작제로 인해 조선 농민은 소작인으로 빈곤하고 고통 속에서 살았다.

### (1) 영세 농민과 소작인의 가난과 고통

나는 타는듯한 햇볕아래를 / 맨발로 헤매여 논에왔노라 / 집에 病들어누운  
안해를 생각하며 // 서말지기 조고마한 나의논에 / 팔랐든 어리모는 가물에  
다말고 / 쪼개진 논바닥엔 새우새게 눕었고야 ..... // 아 — 이모향 참아  
보기어렵어 / 나는 논두덕치며 영영울었노라 / 해넘어 가는곳도 그저모르고

- 장만영, 「농부의 설음」 전문<sup>41)</sup>

37) 김태오, 「비를기다리는 마음」, 『동아일보』, 1939. 8.8. (서범석, 앞의 책, 794쪽).

38) 소순열, 「식민지 조선에서의 지주·소작관계의 구조와 전개」, 『농업사연구』 4권 2호, 한국 농업사학회, 2005, 65쪽; 최은진, 「1930년대 조선소작조정령의 제정과 시행의 한계」, 『역사문제연구』 45호, 역사문제연구소, 2021, 322쪽.

39) 최은진, 「일제하 토지투자 열풍 - 일본인 지주·자본가의 한국 토지 매입 전략과 수익」, 『역사비평』 139호, 역사문제연구소, 2022, 31~34쪽; 하지연, 「대한제국기 일본 대자본의 지주화 과정 연구」, 『이화사학연구』 33호, 이화사학연구소, 2006, 31~32쪽.

40) 강진연, 「식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탈구」, 『사회와 역사』 122집, 한국사회사학회, 2019, 183~184쪽; 송규진, 「조선총독부의 사회경제조사 내용분석: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80집, 호서사학회, 2016, 29~32쪽.

이세상엔 불상하고 원통한사람 너무나 많다 / 시무고 김매고 권우고  
 타작까지 하고서 / 헐벗고 굶주리는 무리 너무나 많다 / 건너집 수복이네는  
 원한해 지은곡식으로 / 모도다 빗값아주고 먹을것은 조금도없는데 /  
 어제는 지주한테 농터까지 빼앗기고서 / 단네식구가 갈곶없어서 왕왕들  
 울고만있다 // (중략) 부자집고깁마다 곡식이 태산이오 / 아득이 넓은들은  
 모도다 논밭이건만 / 어찌하야 수복이네 네식구가 / 밧고 농사할 곡식과  
 논밭은 없더란말이나? / 수복이네는 남다잘사는데 자기네만 못사는듯  
 하야 / 더욱더 소리쳐 통곡한다 //

- 홍용익, 「갈곶없는小作人」 부분<sup>42)</sup>

뉘를위해 아껴왔는지 / 싹싹 굶어놓아야 석섬을 / 두 섬을 짚어지고가니 /  
 凶年이라고 두말을 減해주더라 // 금년같은해 / 農事 참 잘되었다구 / 연방  
 치하도 하고 / 장예 버나 속히 가주오라구 / 命令詞를 붙이는 地主님 /  
 눈초리도 음침하다 // (중략) 말해야 所用없을줄 짐작은하면서 /  
 延期해달란게 나의불찰일가? / 안된다면 그만이지 / 눈을 그렇게 흘겨뜨고  
 / 소리소리 지를게 똬—람 // 집에남은 배한섬을 마저 / 짚어지고 나오는  
 나의꼴을 / 바라볼 식구들의 表情이 / 지금부터 / 눈에 발피구 발피구

- 정호승, 「小作人」 부분<sup>43)</sup>

위에 인용된 농민시는 일제 식민지하의 영세한 농민과 소작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농사를 짓지만 수확한 농산물 대부분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지불하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가난은 지속되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농부의 설음」에서 모심기 후 가뭄에 어린 모는 타들어 가고, 부인은 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 모습에 대한 농민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부의 심정은 3연의 “나는 눈 두덕치며 영영울었노라, 해넘어 가는곳도 그저 모르고”에 잘 묘사되어 있다.

「갈곶없는小作人」의 1연에서 씨 뿌리기에서 타작에 이르는 농사의 전 과정에 걸쳐 농부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헐벗고 굶주린 삶은 지속되고 있음이

41) 장만영, 「농부의 설음」, 『농민』, 1932. 10. (서법석, 앞의 책, 486쪽).

42) 홍용익, 「곡식팔러장애가자니」, 『농민』, 1933. 1. (서법석, 앞의 책, 515쪽).

43) 정호승, 「小作人」, 『조선문학』, 1936.11. (서법석, 앞의 책, 726~727쪽).

나타나 있다. 이는 농사의 결실인 곡식을 현물로 혹은 돈으로 바꾸어 소작료로 지불하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 시기의 소작제에서 지주는 소작인을 지배하기 위해 혹은 소작료를 올리기 위해 소작지를 다른 사람으로 임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는 “어제는 지주한테 농토까지 뺏앗기고서, 단네식구가 갈곶없어서 왕왕들 울고만있다”에 드러나 있다. 2연에서 농지와 농산물이 지주 혹은 부유층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소유와 농작물 배분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부자집 고갯마다 곡식이 태산이오, 아득이 넓은 들은 모도다 논밭이건만, 어찌하여 수복이네 네식구가, 밋고 농사할 곡식과 논밭이 없더란말이냐?”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소작인으로서 수복이와 가족들이 처절하게 느끼는 상대적 빈곤과 고통이 “수복이네는 남다잘사는데 자기네만 못사는듯하야, 더욱더 소리쳐 통곡한다”로 서술되어 있다. 「小作人」은 농사 절기에 알맞은 날씨 덕분에 풍년의 결실을 보았으나 소작료, 장애 벼 지출 등으로 인해 가족에게 필요한 식량이 여전히 모자람을 걱정하는 농부의 처절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 시장경제, 상품화 그리고 가난한 삶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 소작제와 함께 농민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한 요인은 시장경제와 농산물의 상품화이다. 전자는 화폐를 매개로 농민이 시장에서 농산물, 생활용품, 비료, 농기구 등의 매매(買賣)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0.5정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한 자작 농민은 부족한 식량을 충족하기 위해 혹은 생활비를 충당하고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해 농지를 팔고<sup>44)</sup> 난 후 소작농으로 전락(轉落)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업 생산의 양식으로 볼 때, 자작과 자소작농의 비율은 일제 식민지 시기 내내 일정하였으나 소작농은 큰

44) 양반 지주인 구례 류씨가 토지 매각의 사례를 보면, 1915~1942년 동안 부채상환, 금융조합 이자상환, 주세별금납부, 가계비부족금 등으로 논과 밭을 지속적으로 처분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종가 소유 토지가 매각될 뿐만 아니라 그 매각 사유도 종가의 부채와 생활비 보충 주종을 이룬다.... 1930년대 이후 류씨가 경제상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두순·박석두, 『한말 - 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농업경영 연구: 구례 류씨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15쪽.

폭으로 증가하였다.<sup>45)</sup> 아래 농민시는 시장경제, 상품화 그리고 농민의 가난과 고통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콩섬쌀섬 소개실고 읍에가지니 / 간사스런 장사군들 볼수가없네 /  
양복대기 입은바람 길을막으며 / 장에까지 갈것없이 팔고가라네 // (중략)  
농사라고 지여노면 여그저그서 / 빗쟁이나 땅남자가 다들어가오 /  
그남어지 팔너가는 요것쫓아도 / 살살피는 그대네게 뺏길줄아오? (후략)

- 임린, 「곡식팔러장에가자니」 일부<sup>46)</sup>

내일아침 나무한집 팔아서 / 쌀사다가 조반을 하얏텐데 / 하얀눈은 지나긴  
겨울밤 / 말없이 퍽! 퍽! 쏟아졌으니 / 굶었구나 우리 집 세 식구는 // 긴긴밤  
말없이 나린눈이 / 산과들을 밤새에 변케하였으니 / 기뻐할자도 잊으리라 /  
그러나 우리집 세식구는 / 내일아침 굶었구나 굶었구나

- 계수, 「눈오는밤」 전문<sup>47)</sup>

보리타작 씨뿌리기 한창밭분대 / 누에고치 따가지고 읍내로가네 /  
누에친이 김입는이 따로잇는가 / 빗재촉에 먹을것이 당장없는탓 /  
고치지고 고개고개 넘어를가네 // 먼지간이 되오기에 웬까닭인가 /  
물어보니 말도말게 난안팔앗네 / 한관값이 일등이야 일원륙십전 /  
한관이면 두말가웃 억울도하지 / 품값뽕값 치고보면 셈이나되나? //  
그렇지만 할길없네 당장궁하지 / 밑지고도 팔 수밖에 별수잇는가?/(하략)

- 현극, 「공동판매날」 부분<sup>48)</sup>

「곡식팔러장에가자니」는 농민이 추수한 농작물을 소작료나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부는 상품으로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팔 때 중간 상인의 농간에 속지 않을 만큼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고 있다. 이는 “농사라고 지

45) 강진연, 앞의 논문, 167쪽.

46) 임린, 「곡식팔러장에가자니」, 『농민』, 1933. 2. (서범석, 앞의 책, 528쪽).

47) 계수, 「눈오는밤」, 『농민』, 1933. 2. (서범석, 앞의 책, 523~524쪽).

48) 현극, 「공동판매날」, 『농민』, 1932. 8. (서범석, 앞의 책, 472쪽).

여노면 여그저괴서, 빗쟁이나 땅님자가 다들어가오, 그남어지 팔너가는 요것 좇아도, 살살피는 그대(상인)에게 뺏길줄아오?”에서 유추할 수 있다. 「눈오는 밤」은 농토에 의존하지 않거나 농한기(農閑期)에 시장경제의 상품 거래를 통해 하루 벌이로 살아가는 빈곤한 농민의 일상이 폭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연에서 농민은 나무를 모아 시장에 내다 팔아 쌀을 사야 먹고 살 수 있음이 “내일아침 나무한짐 팔아서, 쌀사다가 조반을 하얏텐 데”에 나타나 있다.

시장경제와 농산물의 상품화는 전통적으로 농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았던 농민은 나무와 같은 자연 자원의 거래를 통해서도 빈곤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상의 고단한 생활도 ‘폭설’이란 날씨의 영향을 받았으며, 여분의 양식이 없는 가족은 굶어야 하는 상황이 “긴긴밤 말없이 나린 눈이, 산과 들을 밤새에 변케하였으니, 기뻐할자도 잊으리라, 그러나 우리집 세식구는, 내일아침 굶었구나 굶었구나”로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공동판매날」은 농민들은 삶의 토대인 쌀과 보리의 경작 외에도 누에고치를 생산하여 시장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판매날」에서 지주로부터 빌린 소작지에서 농사를 짓지만 진 빚을 갚고 나면 먹을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도 누에고치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빈곤한 농민의 삶이 그려져 있다.<sup>49)</sup> 현곡은 시장경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음을 “누에친이 깃입는이 따로잇는가?”로 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으로서 누에고치는 협동조합이 조정된 가격으로 매매되는 불공정 거래되는 모습도 묘사되어 있다. 끝 문장에서 누에고치의 생산비에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댓가로 품값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받은 뽕값이 합당하지 않다는 농민의 인식이 표출되어 있다. 그러나 당장 생계의 유지가 곤란함으로 불만스러운 가격에도 뽕을 팔아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그렇지만 할길없네 당장궁하지, 밀지도고 팔 수밖에 별수잇는가?”에 나타나 있다.

일제 식민통치 시대에 농작물과 더불어 농토 자체가 상품으로 매매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토를 사는 농민보다 파는 농민이 더 많았고, 이는 소작농을 증

49) 김란,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뽕나무 재배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7~24쪽.

가시키면서 농민 빈곤을 악순환시켰다. 땅을 팔고 소작농으로 소같이 농사일만 했으나 추수한 농작물은 소작료, 빚, 세금 등에 사용됨으로써 농민의 빈곤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이 조허림의 「흙의 아들이어」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시는 장마 혹은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반대되는 날씨를 “비가 너무와도 걱정이요, 가물어도 잠못들며”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농부의 노고와 애정이 “끝없이 물결치는, 푸른 들판을 자식보다 더 생각한다, 眞實로, 피와 땀으로 각구는 五穀이요, 알알이 情이든 結實이다”에 잘 묘사되어 있다.

땅을 사야지 / 아암 땅을 사야지 / 하면서도 땅을 팔기만 하는 그들 //  
농사를 해야지 / 아암 농사를 해야지 / 골면서도 농사해 / 損만 보는 그들

- 이대용, 「그들」 전부<sup>50)</sup>

(전략) 地主의 땅판이래 / 몸서리치는 공출도 잊어두고 / 그저 소같이  
일만한다 // 비가 너무와도 걱정이요 / 가물어도 잠못들며 / 허터진 꽃과  
별과 새소리는 몰고 // 끝없이 물결치는 / 푸른 들판을 자식보다 더  
생각한다 // 眞實로 / 피와 땀으로 각구는 五穀이요 / 알알이 情이든  
結實이다 // 누구냐 打作마당을 / 노리는 악마들은 // 익어가는 豊年을  
바라보며 꿈꾸다 / 문득 / 낫자루를 불끈 쥐고 일어서는 대지의 주인이여

- 조허림, 「흙의 아들이어」 부분<sup>51)</sup>

### (3) 식량 증산, 수리조합 그리고 농민의 고통

날씨와 땅의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식량증산계획에 따른 신품종의 보급과 수리시설의 확충에 따르는 비용 지출, 생계유지를 위한 빚 등으로 인해 영세한 자작농, 자소작농 그리고 소작농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아래 농민시는 1930년대 이후 가난한 농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sup>52)</sup>

50) 이대용, 「그들」, 『동아일보』, 1932. 3.3. (서법석, 앞의 책, 434~435쪽).

51) 조허림, 「흙의 아들이어」, 『협동』, 1947. 6. (서법석, 앞의 책, 928쪽).

52) 중일전쟁(1937년)으로 인해 식민통치는 전시체제로 변형되었으며, 전시식량확보를 위해 법 또는 행정령을 만든 후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였다. “전시식량확보를 위하여 「미곡배

(전략) 늙은 農夫 朴書房의 눈알은 뜨거웠다. / 門風紙 바람은 칼날에 차것만  
 ..... / 그의 앞길은 새삼엿다. 빛(光明)을 몰으는 地獄같이 ..... / 구름에  
 가리워졌던 둥근달은 / 흰 — 하계 빛외엿것만 / 그의 앞길은 빛외여준  
 반다불도없고나 / 이세상은 그에게 現實의 地獄이였다 / 그리고 그는 /  
 가란한 늙은 農夫라는 赦받을 수 없는 罪人이였다 // (중략) 來日이 十月 보름 /  
 百餘兩(兩은 十錢) 水稅를 뺏으로 무나? / 스무섬 賭租를 뺏으로 주나? / 여름  
 먹은 作利는 뺏으로 갚나? / 그걸 다 주고 나면 무엇 먹고 겨울나나? /  
 그나마 시인이 갚을게나 잊서스면! / 昨年에는 그몹을 洪水가 / 온 食口의  
 조밥 그릇인 江硯 발한피기를 휩쓸어가드니 / 올해에는 豐年이들고도 /  
 집한間 남은 것 망중 팔게 되었군! / 한번받은 傷處는 / 農夫의  
 살림에 한번받은 傷채기는 / 영영 앗을수 없는게야! // 모든게 다 팔자지오! /  
 마누라의 주름잡힌 歎息이다 / 아이구! 이놈의 八字! / 朴書房도 歎息했다  
 / 소같이 柔順하고 / 개아미같이 부즈런한 그들은 / 모든 것을 애꿎은  
 八字에 몰아다붙였다 // (후략)

- 동림, 「農村의 밤」 일부<sup>53)</sup>

(전략) 가을마다 / 가을마다 / 비사자루만 털고 / 복장을 치고 통곡을해도  
 시원치않건만 ..... // 그래도 / 봄이 오면 / 흙이 그립고 / 개구리의 하 —  
 안 배때기가 보꾼어 / 길고도 오 — 랜 忍從의 굴레를 못벗는 人間의 弱點을  
 / 나는 생각한다! // 해마다 봄이 오면 / 언제나 변함없이 / 쟁기와 쟁이가  
 기어나오고 / 온갖씨(種子)가 뿌려지고 / 물싸움, 품싸움, 비료싸움 ..... /  
 그리하여 윈 대지에 / 소담스런 곡식들의 숨소리를 듣는다! // 흙을  
 사랑하는 까닭이다! / 총알보다도 더따가운 지내간 살림살이에 /  
 몸서서리를 치고 이를 악무는것도 ..... // (후략)

- 윤곤강, 「大地」 일부<sup>54)</sup>

급통제법」「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령」 및 「한국미곡배급조정령」 등이 공포되어 한국미의  
 통제, 공출을 제도화하고 배급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조선통독부는 군수, 경찰서장,  
 면장 등 제1선의 관현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節米消費規制와 일본에의 공출량을 강제로 확  
 보하기 위한 행정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김운태,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박영사,  
 1998, 500쪽.

53) 동림, 「農村의 밤」, 『농민』, 1933. 1. (서범석, 앞의 책, 518~519쪽).

54) 윤곤강, 「大地」, 『낭만』, 1936. 11. (서범석, 앞의 책, 723쪽).

「農村의밤」에서 날씨의 상태 변화, 즉 흉수로 논과 밭을 잃거나 절기에 맞추어 적당하게 비가 내려 풍년이 들어도 가난한 농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음이 “昨年에는 그몹을 洪水가, 肉食口의 조밥 그릇인 江 옆 밭한피기를 휩쓸어가드니, 올해에는 豐年이들고도, 집한間 남은 것 망종 팔게 되었군!”에 잘 드러나 있다. 날씨 변화에 따른 흉년 혹은 풍년과는 무관하게 어려움이 지속됨을 농민은 자신의 팔자로 생각하고 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인은 百餘兩(兩은 十錢) 水稅<sup>55)</sup>, 스무섬 賭租 그리고 여름에 먹은 作利를 통해 유추될 수 있다. 1930년대 중반에 발표된 「大地」도 「農村의밤」과 유사하게 몸서리치는 가난함과 이를 벗어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물싸움, 품싸움, 비료싸움 ……”의 표현은 농민이 소작료와 더불어 수리조합의 관개시설 이용, 농사를 짓기 위해 외부 노동력 이용, 신품종 재배를 위한 비료 구입 등에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56)</sup> 마지막 연에서 농민이 흠을 기대를 거는 모습이 “원 대지에, 소담스런 곡식들의 숨소리를 듣는다! 흠을 사랑하는 까닭이다!”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해방 직후 농민의 희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미결정의 사회·정치 공간<sup>57)</sup>

해방은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으면서 가난하

55) 쌀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리시설과 수리조합의 설립은 농민의 삶을 더욱 힘들어지는 과정이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임천수리조합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자작겸소작농이었던 때문에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조합비와 동척의 소작료, 그리고 동척이 부담해야 하는 조합비까지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한편 임천수리조합은 지속적인 개량종 보급과 함께 이에 따른 비료 증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략) 특히 金肥 보급을 독려하여 비료 비용은 수리조합에서 대부분을 받아 소작인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비용은 지주와 소작인이 반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박성섭, 「일제강점기 임천수리조합 설립과 토지소유권 변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1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174쪽.

56) 일제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반봉건적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략) 일제는 쌀증산을 위해 수리관개시설의 증설, 개량품종, 비료, 耕種法 개선, 正條植 등의 농업기술을 이른바 「개량농법」이라 하여 강제 보급하였다.” 김운태, 앞의 책, 330쪽.

57) “문화의 미결정성의 공간이란 지배권력에 의해 고착된 교의적 담론이나 제도들이 이질적 담론이나 힘들어 부딪히면서 양가적으로 열려지는 수행적 공간이다.” 나병철, 『한국문학연구와 문화의 미결정성의 공간』,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7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15, 46쪽.

게 살았던 농민을 희망 그리고 분노와 절망의 감정과 행동이 교차하는 불확실한 혼돈의 상태로 내몰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인해 한민족에게 느닷없이 다가온 해방 직후에 영세 농민, 소작인, 고향 농촌으로 돌아온 동포는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였다. 이들의 간절한 희망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농지(農地)의 무상분배, 즉 총독부와 일본인 소유의 토지 그리고 조선인 대지주 소유의 토지를 몰수하여 영세 농민과 소작인이 직접 소유하여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강렬하게 표출되었으나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생결단(死生決斷)의 좌우 이념 대립을 촉발시켰다. 해방 후 일제의 가혹한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난 민중과 사회·정치를 선도(先導)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것도 확정되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과 희망을 마음껏 표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농민과 연관된 시급하고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문제는 토지, 특히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둘러싼 기본적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한반도에서 탈식민지의 정치 체제, 즉 민족(혹은 국민) 국가의 수립과 정체성 확립과 연관되어 소위 '좌우의 이념'에 기초한 집단 혹은 조직간에 생사(生死)를 건 투쟁을 일으켰으며, 이는 일제 식민통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농민의 빈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더욱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해방 직후의 농민시는 자연의 감상과 재해, 빈곤한 농민의 삶과 농토 그리고 미군정의 임시적 정치가 서로 얽혀져 있는 상태를 간결하고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1) 해방 후 빈곤한 농민 삶의 지속

해방 직후 농민은 일제 식민통치 때와 큰 차이가 없이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 더욱이 예측하기 힘든 날씨는 농민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아래 농민시는 해방 후 날씨와 땅 그리고 농민의 정서와 빈곤한 삶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노랑 나비떼냥 / 흰 나비떼냥 / 한가한 아가씨들의 치맛자락엔 / 5월의  
향긋한 바람이 나부끼고 / 푸르르 푸르르 / 山과 내(川) 곱기도 하다가는 //

五月이여! / 너는 짓밟히는 겨레들의 / 참혹한 生活을 알고 있는가? //  
고대광실 높은 집도 / 山海珍味도 없는건 좋다마는 /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살림살이가 / 三間 陋屋이라도 쉬일 집이 / 마련되어 나가기가 이다지도  
어렵단말이야? // 허깃증 나는 눈동자 속에 / 보리 고개 어른거리는 五月!  
飢渴의 困窮 속에서도 / 悲願이 자라는 달이라. / (후략)

- 최재용, 「五月」 일부<sup>58)</sup>

되꼴 山기슭 七百里의 흐름 / 탁한 물결이 怒馬처럼 달리는 낙동강이여! //  
마름에 쪼들리고 허기에 물감처럼 젖으며 / 울해야 사는듯이 살아보려고  
/ 피땀에 엉키어 매가꾼 논밭 / 이제 濁流에 휘쓸려진 원통을 / 배잠방이  
농부는 痛哭해야 옳은가 // 사는것이 두려워 억누르고 빼앗기고 / 죽음을  
強要하는 모진 채찍아래 默默히 참아온 / 억울한 農家에 또다시 억울한  
하늘 // 洛東江이여 永遠한 흐름이여 / 너는 언제까지나 地主의 말성과 /  
배고파 발버둥치는 어린것의 울음에 / 차라리 너의 품에 눈감고 뛰어들든  
참혹한 광경과 살길 찾아 바가지종종 移民列車에 몸신든 / 겨레의 슬픔  
속에서만 흐르겠느냐 // 故鄉이라 못 잇는 故鄉이라 /안타까이 기쁨 안고  
도라와 / 보아야 보아야 기만과 착취와 強要 속에 다시 찾아온 災害 / 이  
밤에 우리는 어디로 쫓기고 어디서 살어야 하는가 // 흙탕물이여  
흘러가라 / 모든 不潔을 휩쓸고 흘러가라 / 슬픈 農民을 마귀처럼 못 살게  
하는 / 원수에게 부딪쳐 흘러나리라 / (후략)

- 유종대, 「洛東江」 일부<sup>59)</sup>

위의 농민시에서 자연은 작가 혹은 농민의 서정적 정서 혹은 원망하는 심  
정과 연계되어 있을 뿐 해방이라는 특별한 사건과 무관(無關)하게 불확실하  
며 예측하기 어려운 힘으로 표현되어 있다. 『五月』에서 바람은 무미건조하  
며, 정적이지 않고 향긋하며 아가씨의 치맛자락을 한들거리게 하는 힘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대지(大地)의 일부인 산과 강은 푸르름의 고운  
색깔로 입혀져 있으며, 들판에는 노랑과 흰 나비들이 여유롭게 날고 있는 모  
습이 서정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은 이어지는 두 연에서 해

58) 최재용, 「五月」, 『협동』, 1949.7. (서범석, 앞의 책, 974~975쪽).

59) 유종대, 「洛東江」, 『신천지』, 1947.9. (서범석, 앞의 책, 933쪽).

방 직후 겨레와 농민의 참혹한 생활과 대비되어 있다. 「낙동강」에서 유종대는 유동적이며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 불가능한 날씨에 따른 재해를 말(馬)의 난폭한 성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태풍 혹은 장마로 불어나고 탁해진 낙동강의 강물이 성난 말처럼 난폭하고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강물의 힘은 피땀으로 지은 강변 논밭의 농작물을 농부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휩쓸어 가는 모습이 “피땀에 엉키어 매가꾼 논밭, 이제 濁流에 휩쓸려진 원통을, 배잡쟁이 농부는 통곡해야 옳은가”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3연에서 난폭하고 탁해진 강물이 농민의 가난과 고통을 가져오는 온갖 마귀(魔鬼) 혹은 원수를 휩쓸어 가길 원하고 마음이 표출되어 있다.<sup>60)</sup>

1945년 8·15 해방 당시 “전체 인구의 77%가 농민이었고, ... 순소작농이 48.6%, 자소작농 16.5%, 소자작농 8.3%로(농업노동자 2.7%) 농민의 80% 이상이 소작농이었다. 자작농도 0.5정보 미만인 34.5%이었고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었다.”<sup>61)</sup> 최재용과 유종대의 농민시는 해방 직후 소규모 땅을 자작하거나 소작에만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농민들의 가난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五月」에서 농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생존을 위한 식량도 확보할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는 3연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을 살림살이가, 三間陋屋이라도 쉬일 집이, 마련되어 나가지도 이다지도 어렵단말이야?”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최재용은 농민들이 5월의 보리고개<sup>62)</sup>를 넘기기가 대단히 힘

60) 유진오는 「江마을」에서 유종대와 유사하게 장마로 인한 강마을의 참혹한 모습과 이를 극복하려는 농부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장마가 스쳐간 강기슭엔, 모래도 물에 젖어 반작이지 않고, 두어그루 미루나무엔, 집도오래기만 열키어, 가지마다 바람에 나부끼는데, (중략) 마을은 항상 흙냄새 풍기는곳이기에, 멀리서 안타가히 도라와야했고, 모진마음으로 쟁기를 되잡어야했다. (후략)”. 유진오, 「江마을」, 『신천지』 1946. 10. (서범석, 앞의 책, 905~906쪽).

61) 정명채, 「해방 이후의 농민운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215쪽.

62) “지난 가을 수확한 식량이 모두 떨어지고 하곡인 보리가 여물지 않은 음력 4~5월의 춘궁기”를 뜻하며, “농민이 추수 때 걷은 수확물 중 소작료, 빚 또는 그 이자, 세금, 각종 비용 등을 지급하고 난 뒤 나머지 식량으로 초여름에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버티기에는 그 양이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때에는 풀뿌리와 나무껍질 등으로 끼니를 잇고 걸식이나 빚 등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유랑민이 생기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 또한 속출하였다. 이 때, 식량이 궁핍한 농민을 춘궁민 또는 춘곤민(春困民)이라고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3326>, 검색일: 2023.06.12.)

든 상태를 “허기증 나는 눈동자”와 “飢渴의 困窮”으로 묘사하였다. 「洛東江」에서 해방 이후 농민의 가난과 고통은 일제의 폭압적 총독부 정치를 이어받은 미군정의 강압 정치, 지주의 횡포 그리고 자연재해가 중층적으로 얹혀 일어나고 있다. 자연재해와 강압적 정치에 의한 농민의 고통은 3연의 “안타까이 기쁨 안고 도라와, 보아야 보아야 기만과 착취와 強要 속에 또 다시 찾아온 災害”의 표현에서 잘 드러나 있다. 지주와 마름의 횡포는 2연의 “마름에 쪼들리고 허기에 물감처럼 젖으며”와 4연의 “너는 언제까지 地主의 말성과, 배고파 발버둥치는 어린것의 울음에, 이 밤에 우리는 어디로 쫓기고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압적 정치, 지주의 횡포 그리고 재해(災害)가 중층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은 2연의 “죽음을 強要하는 모진 채찍아래 默默히 참아온, 억울한 농가에 또 다시 억울한 하늘”과 5연의 “기만과 착취와 強要 속에 다시 차아온 災害”에 잘 나타나 있다.

## (2) 농지개혁의 주체로서 농민의 외침과 단결

제2차 세계대전 종식에 따라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 미군이 38선 이남에 진주하면서 임시적 통치를 시작하였으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탈식민지 정치체제, 즉 민족 혹은 국민국가가 수립되지 않아 혼돈의 시공간이 생성되었다. 이 속에서 희망에 찬 다양한 목소리가 거침없이 터져 나왔으며, 이는 농민사에서 자연에 비유하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가뭄에 타고 시들은 풀잎 / 비를 만나 파라케 고개들 듯 / 쇠사슬 끈혀지는 「八月」에 / 우리는 일어났다! 아우성치며 / 生活에 意欲 마을에 높아 / 끼니를 늦는 오막살이에서도 / 「죽지 못해 산다 .....」는 / 기막힌 탄식은 사라졌다. // 小作人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 小作人의 애비로 늘거야하는 / 그따위 세상은 아예실타! / 땅을 다고! 땅을 다고! / 우리도 배부르게 살아야겠다. // 우리는 군세게 단결했다. / 보라! 씩씩한 農民組合을 / 여기서는 政治와 生活이 / 한자리에서 이야기된다! / 억눌린 사람도 허리를 펴고 / 自由와 權利를 저마다누리는 / 참된 人民의 나라를 세우자!/이를 방해하는 者 누구냐? // (후략)

이상운, 「농민의소리」 일부<sup>63)</sup>

(전략) 十년 전 양주가 / 등에는 괴나리 보스짐 / 두손엔 바가지 들고 /  
 북으로 멀리 간朴첨지도 / 어제 滿洲서 돌아왔다 / 동리 어꾸에 들자말자  
 연신 / 용감한 아라사 병정 이야길 하면서 / 도수장에 목을 움혀간 소처럼  
 / 九州탄광으로 끌려갔던 金春甫도 / 二年만인 그저계야 그저계야 돌아왔다  
 / 우 아래스 이(齒)를 부득부득 갈면서 // (중략) 夜學校 좁은 강당에선 /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일어나다 / 學兵서 돌아온 德洙君의 / 角帽를 휘두르며  
 부르짖는 演說會다 / 이 넓은 「삼거리」 들(野)도 모두 / 우리들 땅입니다  
 인젠 / 齋藤이 논도 鈴木의 밭도 아닙니다 / 윈 들에 구수하게 풍기다 / 익은  
 곡식의 향내가 // 만세 소리가 때때로 바람결에 들리다 / 이마를 저마음서 //  
 유달리 맑고 푸른 / 자유 조선의 가을 하늘이었다 //

권환, 「故郷」 일부<sup>64)</sup>

(전략) 허나 한줄기 두줄기 / 모이고 또 모여 / 시내가 되고 폭포를 이뤄 /  
 한가람 흘러흘러 바다로 바다로. // 호미를 들고 팽이를 메고 / 이 마을 저  
 마을에서 / 밀물처럼 떼져올 때 / 비겁한 놈들은 숨을 죽이네 // 펄럭이는  
 씩씩한 기스발 아래 / 거짓도 없이 힘은 뭉쳐 / 천둥같이 외치는 아우성  
 소리 / 달린다 오직 새나라 새나라로 ... //

박아지, 「그 날의 데모」 일부<sup>65)</sup>

「농민의소리」에서 해방 후 농민은 대대로 이어지는 소작인의 가난과 고통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농지를 소유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단결하여 농민조합을 결성할 것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농민이 소망하는 목소리는 자연의 변화에 빗대어 “가뭄에 타고 시들은 풀잎, 비를 만나 파라게 고개들 듯”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구절은 일제 식민시대 소작인의 빈곤과 아픔을 그리고 둘째 구절은 해방 이후 농민들이 외치는 희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방 이전 대를 이어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농민의 삶은 “끼니를 늦는 오막살이에서도, 「죽지 못해 산다 ……」는, (중략)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소작인의 애비로 늘겨야하는”에 잘 드러나 있다. 마

63) 이상운, 「농민의소리」, 『해방일보』, 1946.2.13. (서법석, 앞의 책, 886~887쪽).

64) 권환, 「故郷」, 『햇불』, 1946.4.20. (서법석, 앞의 책, 894~895쪽).

65) 박아지, 「그 날의 데모」, 『심화』, 1946.3.14. (서법석, 앞의 책, 891쪽).

지막 연에서 농민이 단결하여 만든 농민조합에서 자유, 소유권, 인민의 나라 건설 등에 대한 정치와 평등하게 잘 사는 삶이 논의되고 있다.

「故郷」의 1연에 1930년대 중반 이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혹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 만주, 구주(九州) 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들이 귀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권환은 九州탄광에서 조선인의 노동이 얼마나 가혹하였는지를 “도수장에 목을 얹혀간 소처럼, 九州탄광으로 끌려갔던 金春甫도, (중략) 우아래스 이(齒)를 부득부득 갈면서”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2연에서 야학교 강단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은 지주 소유의 논과 밭이 이제부터 소작인 혹은 농지가 없는 사람의 것임을 외치고 있다.<sup>66)</sup> 그리고 다가 올 밝고 희망찬 미래는 곡식 냄새와 바람결에 비유되어 있다. 「그 날의 데모」에서 일제 치하 가난하고 억압받은 농민들이 농지개혁의 깃발 아래 곳곳에서 일어나 뭉쳐 자신들의 심정과 주장을 천둥같이 외치고 있다. 힘없이 흩어진 농민들이 뭉쳐 자신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허나 한줄기 두줄기, 모이고 또 모여, 시내가 되고 폭포를 이뤄, 한가람 흘러흘러 바다로 바다로”와 같이 자연에 비유되어 있다.

### (3) 처절한 좌우 이념의 갈등과 절망하는 농민의 비참한 삶

해방 후 농민들은 자신의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삶도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토대한 임시적 통치, 농지개혁의 부진, 좌우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혼돈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농민의 희망은 분노와 절망으로 변화되었으며, 가난과 고통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 아래 농민시에 잘 드러나 있다.

(전략) 倭人들도 모조리 쫓겨 갖기에 / 解放이네 自由네 돌며들기에 /  
서울서는 獨立政府를 세운다는 소문이 끊일새 없기에 / 이제야 살길이  
터지나부다 했었나이다 // 三千浦네 蔚山이네 / 또다른 이름도 모를  
港口마다 / 白玉같은 쌀이 密船으로 나간다는 수소문 / 장거리에서도  
우물가에서도 폼아시 房에서도 / 소근닥대는 이야기였소 / 와이 좀

66) 이혜진, 「1945년 해방과 패전의 서사 - 김남천과 김석범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 79집, 국제어문학회, 2018, 304~316쪽.

못막능기요 / 우리네 조선 농토산이야 / (중략) // 三, 四月 기나긴 해 /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리고개를 / 하냥 색거리로 목숨을 이어 / 한여름  
 곱쌈은 보리밥 아니면 / 부양 나 죽는 놈도 不知數數죠 / 이것도 解放  
 德이랍니까 / 알알이 살살이 털어가려는 바람에 / 동네 방네 고을 고을 마다  
 / 抗爭의 불길이 터지고야 말았소 / 쌀은 못먹으나 보리로나 주림을  
 여이려는 것이었소 / 쇠잔한 목숨들이 피로 사라지는 / 이 모순 同族相殘의  
 슬픈 회오리바람잉기요 / 마침내 큰놈도 작은놈도 부들려 갔나이다 //  
 (중략) // 河陽 넓은 들엔 / 肝덩이처럼 붉은 능금이 조랑 조랑 / 우리네  
 살림살이에 말성도 많아 / 다시 또 묵묵히 일이나 하죠 / 서러움 보다는 /  
 情에 더욱 못이기면서 / 다시 정성껏 罪많은 보리씨를 뿌리나이다 //  
 北風은 고개 넘어 쪼그리고 있고 / 五, 六月 굶주림 설레는 마음에 / 안해도  
 메누리도 딸년도 /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 보리씨 뿌리며 불 돋으며  
 불 돋으며 / 하냥 땅만 땅만 굵어 보나이다

여상현, 「보리씨를 뿌리며」 일부<sup>67)</sup>

(전략) 日章旗가 太極旗로 變했어도 / 그것은 지친 그들에게 「萬歲」 소리로  
 높이날 負擔밖에 / 설익은 빵덩이 하나 던져주지 못했다 / 북만에서 떨다운  
 三鬃야 / 어미 죽고, 기여들 집한間 없고 / 잊지 못할 계집 가버리고 / 말해봐  
 포근이 안아줄 어느 것이 너의 祖國이냐? / (중략) / 「獨立」! 骨髓에겨려,  
 꿈되어 아른거리드니만 / 마침내 닥쳐온 네가 싫다. 이름 좋은 그림자  
 였드냐! / 악착하구나 氷雪은 차곡히 싸이는데 / 누더기웃에 한결같이  
 주리고 떨어 / 안죽음을 恨이라는 하라버지와 / 못살아 말버둥치는 작은  
 것들을 /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냐? 獨立의 貴한 선물로 ..... //

(중략) 土地를 다고 아아 土地를 다고 / 목매여 울면 들은 체나 하겠느냐 /  
 아아 政客은 / 農軍이없는 서울에서만 會議를 하는구나 / 그들은 農軍을  
 위해 稅金과 刑罰을 정하고 / 農軍은 일하다가 죽고 자식새끼 無識해야 하는  
 슬픈 代價를 支拂한다 / 씨부리고 싹트면 김매고 익으면 걷어드리고 말으면  
 쌓고 / 피땀을 애겨서는 안되는 비바람을 避해서도 안되는 / 부즈런하고  
 억세야만되는 이일은 우리 農軍만이 한다 / 아아 土地를 農軍에게 다고,  
 베굴아서 일 못하는 農軍이 없게 해다고 ..... / 이렇게 부르짖고싶다 / 딱한  
 百姓들이 이렇게 부르지저야한다 / (후략)

김상훈, 「田園哀話」 일부<sup>68)</sup>

67) 여상현, 「보리씨를 뿌리며」, 『칠면도』, 1947. 9. 20. (서법석, 앞의 책, 935~937쪽).

「보리씨를 뿌리며」의 첫 행은 해방을 맞이하여 자유로운 사회와 독립 정부에 의해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란 희망을 표출하고 있다. 2연에서 해방 직후 38도선 이남을 통치하게 된 미군정이 자유시장의 원리에 근거한 식량 정책의 실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쌀의 밀수출에 대한 농민의 반감이 농촌 마을의 곳곳에서 표출되고 모습이 그려져 있다.<sup>69)</sup> 3연은 가난한 농민이 4~5월의 보리고개를 넘기기 어려워 죽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해방에 대한 회의(懷疑)를 “한여름 곱삶은 보리밥 아니면, 부양나 죽는 놈도 不知基數죠, 이것도 解放 德이랍니까”로 묘사되어 있다. 농민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농지 개혁의 부진, 미군정의 강압적 식량 관리제의 실행<sup>70)</sup> 등으로 인해 농촌의 곳곳에서 항쟁이 불길같이 일어났으며, 좌우 이념과 무관한 수많은 농민과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은 “알알이 살살이 털어가려는 바람에, 동네 방네 고을 고을 마다, 抗爭의 불길이 터지고야 말었소, 쌀은 못먹으나 보리로나 주름을 여이려는 것이었소, 쇠잔한 목숨들이 피로 사라지는, 이 무슨 同族相殘의 슬픈 회오리바람잉기요”에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마지막 연은 땅에만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농민은 生死決斷의 각오로 싸우는 이념 대립의 회오리 속에서도 온 가족이 나서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어야 하는 서글프고 애닦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미군정의 양곡관리 정책의 강압적 실행과 이에 대한 농민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46년 전국에서 발생한 콜레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통을 차단하고, 큰 홍수까지 겹쳐서 대체 농작물마저 부족하여 식량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중략) 다급해진 미군정이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공출 할당량을 정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식량을 공출하면서 농민들과 충돌하는 등 농촌의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sup>71)</sup>

68) 김상훈, 『田園哀話』, 1946.6. (서범석, 앞의 책, 898~899쪽).

69) 김상숙, 앞의 논문, 156~165쪽. 이 논문은 대구항쟁 직후 영천에서 일어난 항쟁에서 생사(生死)를 건 좌우의 이념투쟁으로 인해 이와 무관한 사람들이 희생하는 양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70) 이송순, 「식민지기 조선의 식량관리제도와 해방 후 양곡관리제도의 비교—식량관리 법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제32호, 고려사학회, 2008, 411~412쪽.

1947년도 다행히 풍년이었지만 추수가 끝나도 농민들은 배부르지 못했다. 공출량이 너무 많아서 식량은 오히려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당국의(미곡) 수집은 더욱 가혹해졌다. 군청에서는 기동부대를 조직하여 각 면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공출량을 채우지 못한 마을을 포위하고 공출불량자들을 본 서로 잡아갔다.<sup>72)</sup>

「田園哀話」는 해방으로 인해 일제 식민통치는 끝나고 한민족의 독립 국가를 세우자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으나 이것이 농민의 가난을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日章旗가 太極旗로 變했어도, 그것은 지친 그들에게 「萬歲」 소리로 높이낼 負擔밖에, 설익은 빵덩이 하나 던져주지 못했다”로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또한 해방이 농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회의(懷疑)로 변화하는 모습이 “「獨立」! 骨髓에겨려, 꿈되어 아른거리드니만, 마침내 닥쳐온 네가 싫다. 이름 좋은 그림자였드냐!”와 “안죽음을 恨이라는 하라버지와, 못살아 발버둥치는 작은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냐? 獨立의 貴한 선물로 .....”에 생동감 있게 드러나 있다. 농민은 생존과 삶의 기반인 농토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간절하게 요청해 보지만 중앙의 정치가들은 회의를 지속할 뿐이다. 오히려 정치가들은 농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함에 따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土地를 다고 아아 土地를 다고, 목매여 울면 들은 체나 하겠느냐. 아아 政客은, 農軍이 없는 서울에서만 會議를 하는구나, 그들은 農軍을 위해 税金과 刑罰을 정하고, 農軍은 일하다가 죽고 자식새끼 無識해야 하는 슬픈 代價를 支拂한다”에 잘 묘사되어 있다. 「田園哀話」는 부지런하고 역세게 농사를 짓고, 또한 농토 소유와 경작의 권리를 농민 스스로 주장하고 찾아야 한다는 표현으로 끝을 맺고 있다.

71) 임혜영, 「일기를 통해 본 농촌의 해방과 전쟁」, 『전북사학』 56호, 전북사학회, 2019, 267쪽.

72) 임혜영, 위의 논문, 267쪽.

## 5. 결론

농민시는 문학 작품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자연과 인간 그리고 제도 및 체제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의 관점으로 농민시를 분석하였다. 정생태학은 생태학, 문화생태학 그리고 정치경제학의 이론과 실천을 토대로 탄생한 이후 유기체와 환경 간의 관계적 관점, 즉 자연 자체의 복잡성과 역동성,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불균등 교환 및 발전, 빈곤, 착취, 자연재해, 토양 침식 등의 폭넓은 주제를 연구해 왔다. 농민시는 자연,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정서, 사회와 정치의 제도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치생태학의 관점으로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고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민시를 날씨와 땅, 농민과 농사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 간의 상호 관계적 관점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시는 농민의 삶과 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날씨와 땅을 세 가지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는 날씨와 땅 각각을 다양한 용어, 비, 장마, 가뭄, 바람, 눈, 가뭄, 흙, 들판, 대지, 논, 밭, 토지 등으로 기술하거나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농민시가 날씨와 땅의 상호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폭우, 장마, 가뭄, 우박, 바람은 산과 들의 야생 식물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발아와 성장 그리고 결실에 큰 피해를 준다. 날씨와 땅은 객체 혹은 인간 활동의 무대가 아닌 농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농민시는 날씨와 땅을 농민의 정서와 관련지어 서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치생태학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신생태학은 자연을 불안정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예측 불가능한 특성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인간의 정서, 의미, 상징과 연계시키지는 않았다.

둘째, 농민과 농사는 개인과 가족의 생존과 번영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삶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더하여 날씨와 땅의 상태 그리고 사회와 국가 체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제 식민시대와 해방 직후 자신의 농토를 갖지 못한 소작 농민은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살았으며, 이는 장마, 폭우, 가뭄 등으로 인한 자연

재해, 소작제 그리고 식민지와 탈식민지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예로 소작농에 의존한 농민은 풍년에도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걱정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데 이는 소작료, 빚, 세금, 생활비 등의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셋째, 해방 후 농민의 삶은 일제 식민시대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미군정 하의 임시적이고 불확실한 정치체제가 형성되었다. 미확정의 정치체제 하에서 일제의 강압적 통치로 고통을 받았던 농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은 자신들의 요구를 자유롭게 주장하고 이를 좌우의 이념으로 나누어졌다. 다양한 요구들 가운데 농민이 가장 희망하고, 향후 수립될 국가의 골격을 결정할 제도는 농토의 소유와 경작에 관한 권리를 법으로 제정한 뒤 실천하는 것이었다. 일본인과 조선인 지주가 소유한 농토를 영세한 농민 혹은 소작인이 소유하여 경작하게 하는 무상분배의 원칙을 둘러싼 좌우 이념은 희망으로 가득한 해방공간을 하나의 민족이 둘로 나누어 사생결단하는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켰으며, 이는 농민의 일상적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농사에 전념할 수 없게 하였다. 해방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고통받는 농민의 삶이 농민시에 잘 나타나 있다. 농민은 해방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주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넘어 희망이 절망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유일한 안식처인 땅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운명을 절감하고 있음이 농민시에 잘 묘사되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 정치생태학의 이론과 농민시 해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나는 정치생태학의 토대를 제공하는 신생태학의 자연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혼성적 생산양식의 제안이다. 신생태학은 자연을 불균형, 불안정, 예측 불가능 등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인간의 정서, 의미 그리고 상징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농민시는 날씨와 땅을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측면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의 정서, 상징 등과 긴밀하게 연계시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생태학을 구성하는 정치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근대 이전부터 존재한 소작제 하에서 농사와 농민의 삶은 날씨와 땅 그리고 일제 총독부와 미군정의 통치체제

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일제 식민시대와 해방 후의 농민과 농사는 일반적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계급 관계가 아닌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동한 생산양식과 이를 둘러싼 농민과 정치체제의 관계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농민시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농민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서정주의, 계몽주의, 비판주의, 사실주의 등의 관점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게 수행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틀로 정치생태학이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가 농민시에 함축된 날씨와 땅, 농민과 농사 그리고 정치·경제 체제 간의 상호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연구의 틀과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또한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논의할 때, 기후, 인간, 제도 혹은 체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관계 속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농민시의 분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의 해결 대안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서범석, 『한국 농민시 -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까지의 농민시 모음』, 고려원, 1993.

### 2. 논저

강진연, 「식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적 탈구」, 『사회와 역사』 122집, 한국사회사학회, 2019.

김란,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뽕나무 재배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김상숙, 「농민항쟁의 측면에서 본 1946년 10월사건 경북 영천의 사례연구」, 『기억과 전망』 25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2011.

김운태,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 박영사, 1998.

나병철, 「한국문학 연구와 문화의 미결정성의 공간」,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박경수, 「해방기 농민시의 전개양상과 현실표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22집, 한국문학학회, 1998.

박규택,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에 의한 자연 환경과 사회의 관계 이해」, 『지리학논구』 18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1998.

\_\_\_\_\_,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 오형묵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3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박근필, 「氣候와 農業의 微視分析(1653~1655)을 통해 본 『農家集成』 編纂의 背景」, 『농업사연구』 제4호 2권, 한국농업사학회, 2005.

박성섭, 「일제강점기 임천수리조합 설립과 토지소유권 변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1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박신화, 「메를로-퐁띠의 자연개념과 주체의 문제」, 『철학논집』 제27집,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서범석, 「홍일선의 농민시에 나타난 ‘땅’에 관한 고찰」, 『겨레어문학』 제38집.

- 겨레어문학회, 2007.
- \_\_\_\_\_, 「개화기 농민시의 화자와 시의식 고찰」, 『국제어문』 제 56집, 국제어문학회, 2012.
- 송규진, 「조선총독부의 사회경제조사 내용분석: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80집, 호서사학회, 2016.
- 소순열, 「식민지 조선에서의 지주·소작관계의 구조와 전개」, 『농업사연구』 4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2005.
- 이광호, 『인간과 기후환경』, 시그마프레스, 2004.
- 임규호·심태현, 「조선왕조 실록의 기상 현상 기록 빈도에 근거한 기후」, 『한국기상학회지』 4권, 한국기상학회, 1998.
- 이두순·박석두, 『한말 - 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농업경영 연구: 구례 류씨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이승순, 「식민지기 조선의 식량관리제도와 해방 후 양곡관리제도의 비교 - 식량관리법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 제32호, 고려사학회, 2008.
- 오세영, 「日帝下 韓國의 農民文學論과 農民詩 研究」, 『성곡론총』 제22집, 성곡학술문화재단, 1991.
- 이혜진, 「1945년 해방과 패전의 서사 - 김남천과 김석범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 79집, 국제어문학회, 2018.
- 임철희·이정철, 「기후변화 시대 인문학의 응답과 역할 : 철학, 종교,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제13권 4호, 한국기후변화학회, 2022.
- 전영주, 「일제강점기 ‘농민시’를 통해 본 계몽의 수사학: 『조선농민』과 『농민생활』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86집, 동악어문학회, 2022.
- 전운성, 「光復後 美軍政府의 土地改革에 관한 再評價」, 『사회과학연구』 34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4.
- 정명재, 「해방 이후의 농민운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정효구, 「1920년대 시가 발견한 ‘들’의 표상성과 그 의미」, 『한국시학연구』 제 56호, 한국시학회, 2018.

- 최은진, 「1930년대 조선소작조정령의 제정과 시행의 한계」, 『역사문제연구』 45호, 역사문제연구소, 2021.
- \_\_\_\_\_, 「일제하 토지투자 열풍 - 일본인 지주·자본가의 한국 토지 매입 전략과 수익」, 『역사비평』 139호, 역사문제연구소, 2022.
- 하지연, 「대한제국기 일본 대자본의 지주화 과정 연구」, 『이화사학연구』 33호, 이화사학연구소, 2006.
- 홍성식, 「생활문학으로서의 농민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6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 Escobar, A., “Elements for a post-structuralist political ecology”, *Futures*, Vol.28, No.4, 1996.
- Grabbatin, B. and J. Rossi, “Political Ecology: Nonequilibrium Science and Nature - Society Research”, *Geography Compass*, Vol.6, No.5, 2012.
- Jones, S., “Political Ecology and Degradation: How Does the Land Lie 21 Years after Blaikie and Brookfield’s *Land Degradation and Society?*”, *Geography Compass*, Vol.2, No.3, 2008.
- Loftus, A., “Political ecology II: Whither the stat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44, No.1, 2020.
- Royle, C., “Complexity, Dynamism, and Agency: How Can Dialectical Biology Inform Geography?”, *Antipode*, Vol.49, No.5, 2017.
- Scoones, I., “New Ec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What Prospects for an Fruitful Engage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28, 1999.
- Sule E. Egya, Margaret N. Agu and Safiyya Adam, “Poetry, Protest, and Environment: Human and Nonhuman Rights in Nigerian Literature”, *Law and Humanities*, Vol.16, No.1, 2022.
- Will Steffen, Paul J. Crutzen and John R. McNeill, “The Anthropocene: Are Humans Now Overwhelming the Great Forces of Nature?”, *Ambio*, Vol.36, No.8, 2007.
- Wolf, E., “Ownership and Political Ec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Vol.45, No. 3, 1972.

### 3. 기타 자료

이희승 감수,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 200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3326>, 검색일: 2023.06.12.)

<Abstract>

## Investigation on Peasantry Poem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Liberation Space from a Political Ecology

Park, Kyu-Tae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weather, land, peasantry life and the system of political economy included in the peasantry poems published in Japanese forced occupation and liberation period from a political ecology. The results are in the followings. Firstly, peasantry poems have expressed weather and land from an individual or relational perspective. Weather and land are shown as the form related to peasantry's thinking and emotion. Secondly, the affliction and poverty of peasantry are due to natural disaster, tenant farming system, tax and colonial politics. Thirdly, peasantry's living was not improved even in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asantry's needs and hopes were largely exploded in an uncertainty situation of transforming the political system. Peasantry actively participated or was passively entangled in the intensive struggles to dominant ideology and power. Peasantry severely experienced the realities in the intersectional zone of mixing hope and despair and were sadly feel to come back to a land as an only habitable place.

\* Key Words: Japanese Colonial Period, Peasantry Poems, Political Ecology, Tenant Farming System, Weather and Land

· 논문투고일: 2023년 5월 19일 · 심사완료일: 2023년 7월 8일 · 게재결정일: 2023년 7월 25일